

H · I · F · I · & · H · O · M · E · T · H · E · A · T · E · R

AUDIO

Special

분리형을 위협하는 주목할 만한 인티앰프 Part.2

2009 **9**
Monthly Magazine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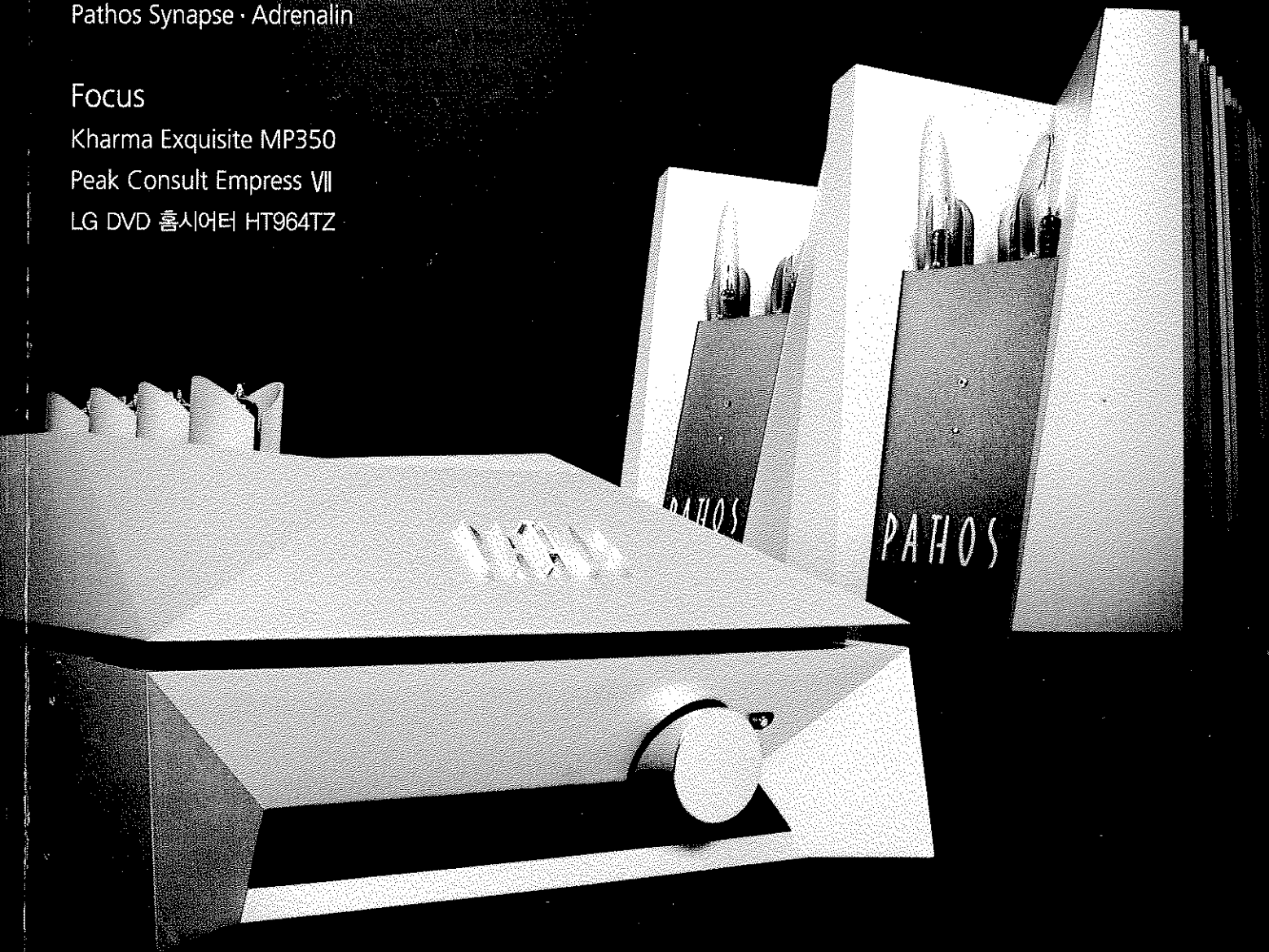
Pathos Synapse · Adrenalin

Focus

Kharmax Exquisite MP350

Peak Consult Empress VII

LG DVD 홈시어터 HT964TZ



PATHOS

www.audioht.co.kr
www.월간오디오.com



ISSN 1227-3066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해져 오는
음악의 뜨거운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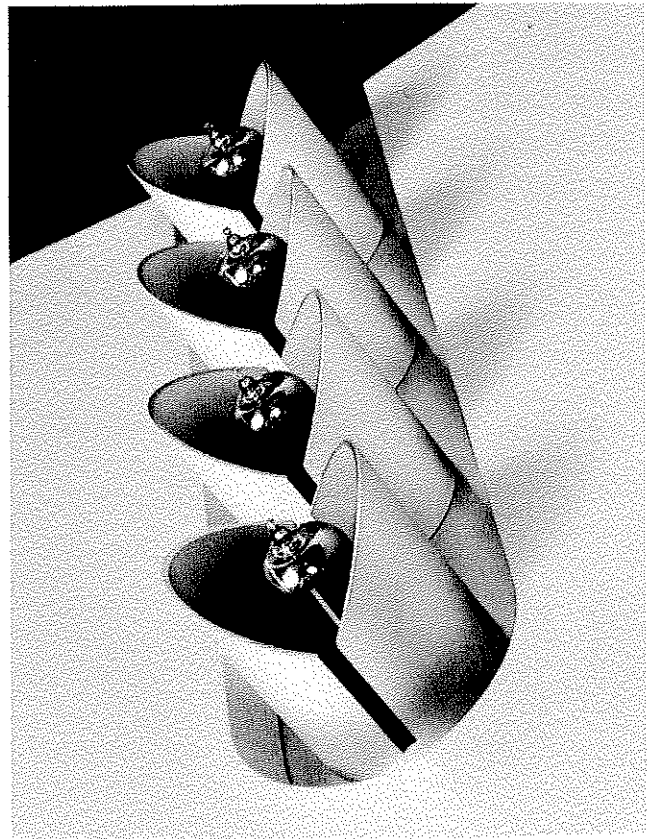
패토스의 시놉스 프라앰프와 아드레날린 모노블록 파워 앰프의 조합이 내는 소리는 어떨까? 서론에서 결론 낸 마지막 부분을 평으로 대신하고 싶다. 시청실에는 월슨 오디오의 맥스 3와 코드의 레드 레퍼런스 MK2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이는 부드럽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이다. 아슈케나지의 쇼팽 연주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다. 호르헤 볼레트가 연주하는 리스트는 해석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다. 글 최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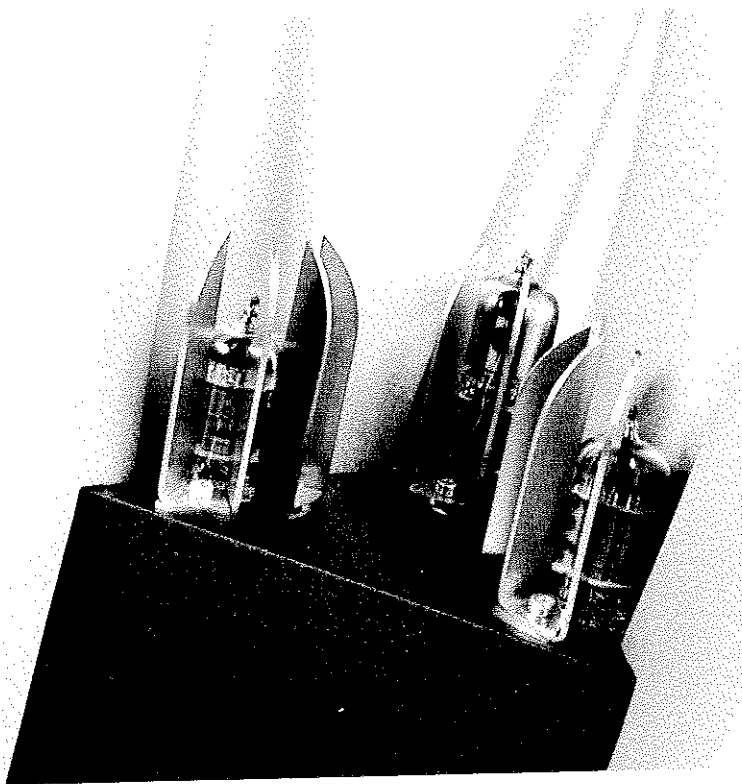
Pathos Synapse Adrenalin

요즘 인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읽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정보는 절대 참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책도 책 나름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도 다른 경우가 많았다.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뇌이다. 한 마디로 신비스럽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대사량 차지한다. 그만큼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뇌로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뇌에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한다. 기억과 관련된 것도 뇌이다. 우리가 하이파이 기기를 통해서 듣는 음악이나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뇌와 관련되어 있다. 인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청각 기억 능력이다. 사실 우리 인간의 청각 기억 능력은 시각 기억 능력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시각 기억 능력이 청각 기억 능력보다 500배나 더 뛰어나다니 말이다. 하지만 하이파이를 즐기는 우리는 청각에 예민하다. 작은 것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후천적으로 조금은 더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앞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대사량을 차지하는 것이 뇌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차단이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집중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하자. 주변에 차 소음, 주변 사람들의 대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행사 소리. 이 상황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것은 주변 요소들을 뇌에서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중요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변에 대해 잘 인식되지 않는 것. 이것을 차단시키는 일이 뇌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 하이파이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다. 똑같은 기기를 가져다 놓고도 듣는 여마다 다르다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집중하는 것도 이 기능을 위한 것.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주변에 소음이 너무 크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때 그렇다. 이것을 하이파이에 적용해 보자.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정신과적으로도 음악은 분명 자유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가 좋은 음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집중력에서의 차이도 굉장하다. 월간 오디오 리뷰에서 이렇게 뇌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서론으로 꺼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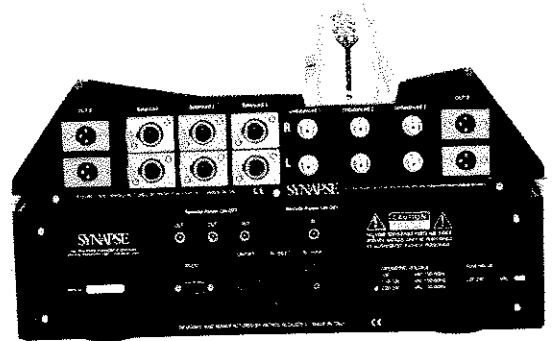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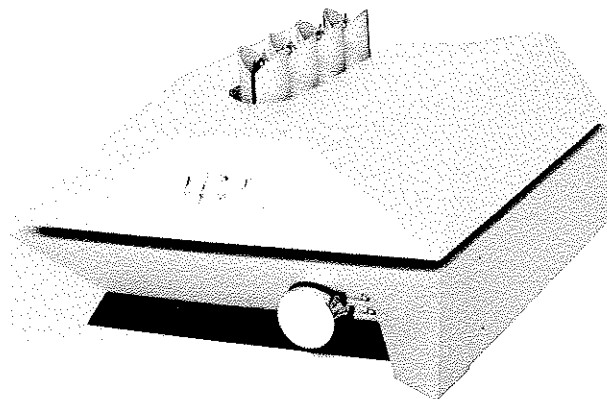


이유도 이번 표지 제품인 패토스의 시냅스 프리앰프와 아드레날린 파워 앰프를 들으면서 꼭 이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말 감동적인 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이것을 같이 듣고 공감하는 것과 밀로써 표현하는 법.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쨌든 패토스는 시냅스와 아드레날린을 통해 자신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음을 구현했다고도 볼 만큼 이번 시청에서 음악의 표현력은 대단했다. 우리가 흔히 하이파이 기기를 논할 때 많은 궁금증들이 있다. 프리앰프는 왜 필요한가? 또 파워 앰프

가 과연 출력 외에 무슨 자리가 있는가? 꼭 비싼 기기를 사야 좋은 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패토스는 이제껏 현대 하이엔드 하이파이 메이커 중에서도 이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 모른다. 2010년을 1년 앞둔 지금 거의 모든 메이커가 솔리드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때 패토스는 새로운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인폴(Inpo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진공관과 솔리드스테이트 회로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형태로 봐도 무방하지만 그 중 가장 진보된 회로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들은 모두 진공관의 정점과 트랜지스터 출력의 장점만을 가진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진공관의 단점과 트랜지스터 출력의 단점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토스의 인폴은 지아니 모리타토에 의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장안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상을 실현하고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이 패토스의 아드레날린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패토스의 앰프 설계 사상은 훌륭하다. 결코 스펙에 얽매이는 일이 없다. 또한 가능하면 A클래스 증폭을 고집한다. 요즘들이 AB클래스 증폭을 하는 파워 앰프도 소출력에서는 A클래스 증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A클래스 증폭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 앞에 붙여 클래스A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A클래스가 뭐가 아메사 하고 묻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80에서 무려 180W의 출력을 낸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실제 과거의 명기라 불리었던 A클래스 100W 모드볼록 파워 앰프의 가격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생각해보면 180W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지만 80에서 180W의 순수 A급 증폭을 갖지만 얼은 생각보다 훨씬 덜 나쁜 편이다. 이와 크게 관련된 것은 몸체이다. 회로적으로 일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식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한 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히트싱크 디자인을 따라지도 열 방출은 달라진다. 패토스는 이것을 또 비록 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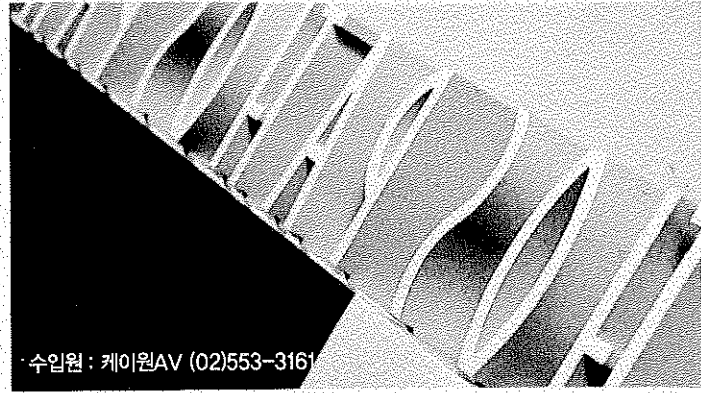
Pathos Synapse



언뜻보기 거대한 몸체가 엄청난 크기의 방열판 역할을 하면서 사사의 로고를 직각한 간격을 두고 디자인하여 열을 배출시키고 있다. 물론 거대한 몸체를 한 덩어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모노블록화 한 것이다. 그렇기에 인폴 디자인에 8Ω에 180W의 퓨어 A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

시냅스 프리앰프와 아드레날린 파워 앰프 모두 제로 피드백 방식이다. 사실 이 방식은 상당히 어려운 설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스에서 공급받은 신호를 왜곡 없이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은 제로 피드백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회로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면 결코 좋은 음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 레플의 피드백이나 커런트 피드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앞서 언급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증폭 과정마다 원래 신호에 비해 증폭되면서 얼마나 신호가 왜곡되었는지를 비교하고 왜곡된 부분을 보정하는 작업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 한다. 증폭 과정이 순조롭고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회로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피드백 방식의 파워 앰프들은 스펙상 표기되는 숫자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파이 기기를 선택할 때만큼은 스펙상 표기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패토스의 시냅스 프리앰프와 아드레날린 모노블록 파워 앰프의 조합이 내는 소리는 어떻게? 서론에서 결론 낸 마지막 부분을 행으로 대신하고 싶다. 시청실에는 원순 오디오의 맥스 3와 코드의 레드 레퍼런스 MK2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두 발할 수 없을 만큼의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이는 부드럽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이다. 아쉬게나지의 소행 연주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다. 호르헤 볼레트가 연주하는 리스트는 해석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다. 대단한 것은 맥스 3가 상당한 제곱의 대형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독주나 소편성 실내악의 연주의 디테일을 아주 사실감 넘치게 연주한 데 있다. 실제 이러한 스피커들은 설계의 문제보다는 잘못된 녹음에 의해서도 대형



수입원 : 케이원AV (02)553-3161

Synapse 프리앰프

- 가격 : 4,100만원
- 사용 진공관 : 6H30(4)
- 주파수 응답 : 1Hz-100kHz(200kHz/-3dB)
- THD : 0.04%(1W)
- 볼륨 컨트롤 : 0.5dB(168 스텝)

Adrenalin 파워 앰프

- 가격 : 6,900만원
- 사용 진공관 : ECC83(2), 6H30(1)
- 실용 출력 : 180W(8Ω)
- 입력 임피던스 : 100Ω
- 주파수 응답 : 1Hz-80kHz(-1dB/40kHz)
- THD : 0.01%(1W), 0.2%(50W)
- 엔벨로프 : 25
- 크기(W×H) : 68×30×44cm
- 무게 : 70kg

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빔인데, 시냅스와 아드레날린은 이를 우아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대편성 음원을 걸면 맥스 3의 재능이 대형기임을 즉시 각인시켜 준다. 중요한 것은 표현력이다. 수많은 악기가 난무하는 오케스트라를, 미디어에 기록된 모든 소리 정보를 들려주겠다는 듯 묘사한다. 사실 리부가 잡히고 시청 스케줄을 매우 짧게 잡았다. 이유인즉, 저녁에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하이파이 기기의 음을 들어 보았다고 자부한 필자는 어대 시냅스와 아드레날린의 마음이 빼앗기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걸게 되었고, 결국 저녁 약속은 미뤄지게 되었다. **A**

Pathos Adrenalin

